

연꽃박물관

연꽃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상의 좌대나 광배에 표현되기 시작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사람들의 생활 속에 다양하게 자리 잡았다.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을 거치며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 화려하게 피어났다. 세미원 연꽃박물관은 연꽃을 주제로 한 생활용품, 음식 관련 유물, 옛 문서 등을 모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2009년 1월 개관하였다.

01 연화당초문망새

고려시대의 연화당초문망새로 지붕의 추녀 끝에 설치된 장식기와로, 연꽃과 당초무늬를 조화롭게 새겨 아름다움과 길상을 상징한다.



02 연화문 수막새

연꽃무늬는 인도에서 전래되어 청결함을 상징하며, 신라 수막새와 고려 말 분청사기에서 연당초문, 연변문, 연화어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03 백제 연꽃무늬 와당

백제시대의 연꽃무늬 와당은 건축물의 지붕 끝기와를 장식한 것으로, 연꽃 문양을 새겨 불교적 이상과 장식을 함께 표현했다.



04 연화문전

연화문전은 연꽃 문양이 새겨진 건축 자재나 장식용 벽돌이다. 연꽃은 불교에서 깨달음과 순수함을 상징하며, 주로 사찰에 사용된다. 이는 종교적 의미와 함께 미적 가치도 지닌다.



05 연화당초문망새

전각이나 문루 같은 큰 기와집의 용마루 양끝에 세운 장식. 매 대가리처럼 쏙 불거지고 모가 난 두 뺨에 눈알과 깃 모양의 선과 점이 새겨져 있다. 보통 집에서 내림새가 쓰인다. 취두, 취와, 치문이라고도 한다.



06 신라와당

신라의 연꽃무늬는 주로 사찰지에서 발견된 수막새에서 나타난다. 가느다란 용기선을 두어서 은근히 힘을 주는 동시에 두 면을 양분하고 있다. 백제의 문양과 비슷하나 백제것보다 양감이 강하고 연꽃잎 끝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였다.



07 수저주머니

개인 수저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휴대하기 위해 사용된 천 주머니로, 겉면에 연꽃 문양을 수놓아 장식성과 상징성을 더했다.



08 실패

실패란 실을 감아두며 필요할 때 사용하던 물건이다. 얇은 직육면체 나무에 무늬나 문자를 새겼다. 대개 여인이 지향할 부덕(不德)이나 유교적 덕목 그리고 인생의 복락(福樂)을 기원한 내용이다.



09 연지문인두

인두판은 인두질을 할 때 밑에서 천을 받치는 판을 말한다. 옛날 여인들은 바늘질을 할때 솔기같은 부분을 접거나 선을 내기 위해 인두질을 했다.



10 안경집

안경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휴대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작은 갑. 주로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휴대용이며, 둥글 납작하고 가름한 타원형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위로 빼낸 여분의 끈으로 허리띠에 차고 다녔다.



11 바늘꽃이

견사로 된 조선시대 바늘꽃이이다.



12 색실주머니

바느질을 할 때나 수를 놓을 때 필요한 각종 실과 색실을 분류하여 보관하는 데 사용된다.



13 호박굴레

견으로 만들어져 머리에 쓰는 전통 호박굴레이다.



14 청자발

청자로 만든 사발로, 부드러운 곡선과 맑은 청자 유약이 조화를 이루며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다.



15 청자대접

국이나 송농 따위를 담는데 쓰는 위가 넓고 운두가 낮은 모양의 그릇이다. 맑은 청록색 유약이 특징이다.



16 연봉순가락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순가락이다. 손잡이 자루가 많이 휘어 있고, 자루의 끝이 연봉오리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17 시전지판

시전지는 시나 편지 따위를 쓰는 종이를 말하며, 시전지판은 시전지에 장식용 무늬를 찍어 넣기 위해 만든 판을 말한다. 문양을 통해 문예 활동의 격조를 높이고 종이를 예술작품으로 완성시켰다.



18 연화문능화판

전각이나 문루 같은 큰 기와집의 용마루 양끝에 세운 장식. 매 대가리처럼 쭈욱 붙거지고 모가 난 두 뺨에 눈알과 깃 모양의 선과 점이 새겨져 있다. 보통 집에서 내림새가 쓰인다. 취두, 취와, 취문이라고도 한다.



19 소반

음식을 얹어 나르거나 방에 놓고 식탁으로 사용하는 상의 종류를 소반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소반은 연꽃 문양과 섬세한 조각이 특징이며, 실용성을 넘어선 예술적·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20 필통

붓을 꽂아 보관하기 위한 필통은 나무, 대나무, 도자기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었다. 하나의 통으로 된 것과 용도나 재질에 따라 보관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통을 연결한 형태가 있다.



21 연적

주전자형 연적으로, 복부 전면에 가는 음각선으로 연꽃잎 무늬를 섬세하게 장식하였다. 전체에 짙은 녹색 유약을 입혀 고급스럽고 중후한 아름다움을 풍긴다.



22 연화문 먹물통

연화문 먹물통은 일반적으로 먹을 갈아 담는 용도로 사용되며, 나무로 정교하게 깎아 제작된 후 뚜껑을 달아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보호한다. 특히, 연화문 장식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어 장식적인 요소도 강조한다.



23 연화문 벼루

연꽃문양의 벼루로 먹을 가는 데 쓰는, 돌로 만든 문방구를 가리킨다. 벼루는 붓, 먹, 선지와 함께 하여 전통적으로 문방사우(文房四友)로 불린다.



24 연화문 풍경

풍경은 법당이나 탑의 추녀 밑에 다는 것으로 풍탁이라고도 한다. 설의 끝에는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열심히 불교에 전념하라는 의미에서 물고기모양의 금속판을 다는 경우도 있다.



25 연불조각상

나무에 조각된 연조각 불상이다. 연잎 안에 조각된 불상은 나무에 정교하게 조각된 작품으로, 연잎을 배경으로 불상이 자리잡고 있어 자연과 불교적 상징을 결합한 형태이다.



26 불단장식

조선시대 불단 장식은 나무조각으로 꽃, 새, 짐승, 당초무늬, 보상화무늬 등을 섬세하게 조각하여 화려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러한 장식들은 불교적 상징을 담고 있으며, 당시의 종교적 신앙과 미적 감각을 반영한 예술 작품이다.



27 연꽃 촛대

조선시대 연꽃촛대는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해 연꽃 형태로 제작된 불교 의식용 촛대이다. 연꽃은 깨달음과 순결을 상징하며, 촛대 전체에 섬세한 조각미가 돋보인다.



28 종탁

종탁은 말이나 가마 등에 달아 움직일 때 소리를 내는 작은 방울 장식이다. 악귀를 쫓고 길흉을 점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29 정병

물을 담은 병으로, 물 가운데서도 가장 깨끗한 물을 넣은 병을 이른다. 정병에 넣는 정수는 또한 중생들의 고통과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감로수와도 서로 통하여, 감로병 또는 보병이라고도 일컫는다.



30 손곱돌화로

손곱돌화로는 공예품으로 가치가 높아 반가에서 주로 실용적으로 사용되었다. 딸이 시집갈 때 가마에 넣거나, 사랑방에서 손을 찌거나 담뱃불을 붙이는데 쓰였으며, 연꽃 모양은 당시 사람들의 미적 취향을 반영한 가정용품이었다.



31 민불

민불은 사찰이 아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모셔진 불상으로, 기복적인 신앙 대상이자 민중 불교의 한 형태이다. 형식과 재료가 다양하며, 현실적인 바람을 담은 신앙의 표현이었다.



32 동종

조선시대 동종은 주로 사찰에서 의식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금속 세공 기술이 뛰어난 예로 꼽힌다. 이 동종들은 종소리로 의식의 시작과 끝을 알리거나 신앙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3 연화문청동금고

동심원으로 몇 개의 구획을 나누고, 중앙에 연화문을 새겨 장식하였다. 동근형태는 동양인들의 고대 우주관인 천원지방(天元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 사상의 하늘(天)을 상징한다.



34 팔걸이

팔걸이는 몸을 비스듬히 편안하게 기대어 앉을 때 팔을 받치는 받침대로 궤상(L), 외침()이라 부르기도 한다. 두 개의 반원형 판재 사이에 기둥을 세우는 간단한 구조이지만 가는 기둥에 조각을 하거나 무늬를 투각한 판을 사용하여 장식성과 통기성을 모두 고려하였다.



35 연화문 촛대

연화문 문양의 초음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받침대로, 보통 촛불 받침 부분이나 기둥, 받침대에 연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형상으로 조각 되어 있으며, 연꽃은 불교에서 청정함과 깨달음을 상징한다.



36 청자연화문매병

고려청자 매병이다. 작은 입과 풍만한 어깨를 가진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형태로, 매병의 표면은 청자 특유의 맑은 색을 띠며, 연화문이 섬세하게 장식되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불교적 상징을 담고 있다.



37 청자상감연화문매병

목직한 형태의 병으로, 목에서부터 점차 부풀어 동체 하단에서 가장 넓은 곡선을 이루며 안정감을 준다. 외반된 구연과 조화를 이루는 유려한 곡선미가 특징이다. 병 몸체에는 연꽃문을 상감하여 섬세한 조형미와 상징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38 분청사기상감연화문매병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매병은 'S'자형으로 이루어진 힘찬 굴곡이 특징이다. 이 매병은 유태와 문양기법의 측면에서의 고려 말 상감청자의 맥을 계승하였으나, 문양표현에는 고려청자의 우아함과는 이미 멀어져 있다.



39 닝쿨무늬항아리

닝쿨무늬항아리는 낮고 둥근 형태에 모란 닝쿨 무늬가 상감 기법으로 섬세하게 표현된 도자기이다. 구불구불하게 펼쳐진 닝쿨은 자연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형상화하며, 항아리의 중간 부분을 장식한다.

